광주 도로에 연말부터 민간자율주행차 달린다

자율주행기업 '에이스랩' 임시면허 취득…기아 카니발 차량 실증
빛그린산단에 고정밀지도 구축…공공서비스 이어 민간 영역 첫 도전

이르면 올해 말부터 'AI·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인 광주 도심 일반도로에서 민간 영역 자율주행 차량 실증이 시작된다. 민간기업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기아 카니발<사진>이 광주 빛그린산업단지 등을 누비게 된다.

29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이하 AI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 실증사업과 관련해, 자율주행 전문기업 (주)에이스랩의 기술을 적용한 차량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임시 운행 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차량은 국토교통부 임시 운행 허가증을 받아 광주시에서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았다.

자율주행차량 임시면허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주행 전문기업 에이스랩은 자율주행 기능을 장착한 기아의 대형 레저용 차량(RV)인 카니발을 이용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알고리즘, 센서, 부품 등을 실증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르면 올해말까지 광산구 빛그린산단 구간에 자율주행을 위한 고정밀지도(HDmap)를 구축하는 한편 우치공원 내 자율주행 시범운행 경로 등도 추가로 구축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는 평동산업단지와 수완지구, 빛그린산단, 북구 첨단 2지구 등이다.

사업단은 자율주행 시험운행지구로 지정된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와 실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공지능 기업이나 대학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자율주행·분야에서 신규 투자 및 기술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원하는 AI 기업이 광주 일반 도로에서 실증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품 개발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2019년 국내 최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운전자 없이 도로 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등 공공서비스 실증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평동산단을 중심으로 수완지구, 우치공원 등 7개 구역에서 운전자 없이 스스로 이동하는 무인 저속 특장차를 이용한 공공 정보 수집·공유 실증이 진행 중이다.

차량은 광주 평동산단과 수완지구, 우치공원 등을 달리며 성능을 시험받고 있으며,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들 무인 차량 주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원격제어로 대처하고 있다. 또 영상정보를 수집해 기업 등에 제공하는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도 함께 진행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이유로 도로 주행시 운전자 탑승이 전제돼야 하지만,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안전성이 담보된 무인 차량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차 임시 운행허가 등에 대한 규제 특례가 허용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빛으로 물든 '여수 밤바다' 2023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가 지난 28일 오후 여수 이순신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장군도와 돌산대교를 배경으로 화려한 불꽃들이 밤바다를 수놓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다음달까지 228개 업소 평가…우수업소 등급 지정·공개

광주시는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지역음식점 228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 조언(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업소의 등급을 지정·공개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는 기본분야(5항목), 일반분야(33항목), 공통분야(6항목)로 총 3개 분야 4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해당등급이 부여된다.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위탁받아 진행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지정기간 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간 출입·검사·수거 면제, 음식문화 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사업 지원 우대, 식품진흥기금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광주시는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음식점의 식재료 보관·관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접수 지원, 위생용품 제공까지 맞춤형 현장지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신 광주시 위생정책과장은 "음식점의 효율적 위생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먹는 깨끗한 외식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수서 한·일 8개 시·도현 협력 다짐

내일까지 이틀간 지사회의…관광 활성화 공동성명문 발표도

제 31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가 30일부터 이틀간 여수에서 열린다.

한일해협 지사회의는 일본의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 등 4개 현과 한국의 전남, 부산, 경남, 제주 등 4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1992년 시작, 지방정부 다자간 교류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첫날인 30일에는 '코로나19 이후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 시·도현 지사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자유토론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이날 한·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호노력한다는 취지의 공동성명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31일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일본정원과 기념식수를 방문한 후 구례 화엄사로 이동해 각황전과 대웅전을 시찰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일 해협연안 8개 시·도현이 힘을 모아 한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이끌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中 장시성, 고위급 회담 재개

청소년 교류 확대 협약 등

전남도와 중국 장시성이 고위급 회담을 열어 코로나 이후 대면 교류 활성화 방안과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사업을 논의하고 청소년 교류 확대 협약을 했다.

전남도는 29일 "지난 27일 중국 장시성위원회 우하오 조직부장을 단장으로 교육청 부서기, 문화관광청 부청장 등으로 구성된 장시성 대표단이 도를 방문해 명창환 행정부지사와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고위급 회담에서 명창환 부지사는 "전남도와 장시성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고 그동안 대면·비대면으로 교류를 추진했다"며 "이번 장시성 고위급 방문을 계기로 관광,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의약 등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협력을 통해 양 지역 공동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선 양 지역 청소년 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3년 체결한 청소년 교류 협의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대학생 25명을 포함해 격년제로 30명씩 상호 방문을 통해 우정을 다지고 글로벌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